디자인씽킹과 창의적기획 개인 활동 보고서

게임공학과 2020182028 이규원

역할 : 인터뷰, 토론

문제 인식

어떻게 책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도서관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선, 우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해 사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서는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오는 사람보다, 어린 청소년들은 옆에 축구장에서 즐기다 물마시고 에어컨 쐬러 오고, 청년들은 공부방 정도로만 사용한다고 전했다.

즉, 책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책을 읽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 아닌, 공부방으로서, 휴식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럼 왜 책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을까?

이를 알기 위해, 책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후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왜 책을 읽지 않게 되었는지 그 환경을 이해했다.

그는, 과거 중학생 때까진, 책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바빠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신, E-book으로 소설은 여전히 읽고 있었다. 따로 시간을 내서 도서관에 가는 것이 번거롭고, 굳이 도서관 갈 시간에 그냥 집에서 쉬면서 책을 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또한, 혼자 책을 읽으러 가기엔 주변 사람들 시선이 있어 책을 읽는데 마냥 편하지 않고, 같이 읽으러 가기엔, 같이 떠들 수도 없어 굳이 가야 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즉, 지금 도서관이 그에게 굳이 시간을 써서 갈 공간이 아니며, 불편하기만 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프로토타입

우리 조는, 그에 대한 방안으로 더 좋은 편의시설,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도서관 이라는 주제로 프로토타입을 구상했다.

* 토론할 수 있는 공간

기존 도서관의 이미지인 정적을 부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든다.

* 깔끔하고 컨셉 있는 시설

실제로 도서관이 메리트가 있는 공간이 되어도, 청년들의 방문을 이끌어내려면, 홍보가 필요하다. 우선 깔끔한 편의시설들과, 계절이나 특별한 날에 컨셉을 맞춰 도서관을 꾸며 SNS에 청년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공간을 보여준다. 예로 할로윈 때는, 할로윈에 맞춰 도서관 입구를 꾸미고, 그런 모습을 SNS에 올리면, 청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 카페, 베이커리 등과 제휴

도서관 내에서 카페나 베이커리와 제휴하여 편안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책을 읽으러 올 때 부담이 아니라 휴식한다는 인식을 줘, 도서관에 오는 심리적 허들을 낮춘다.

느낀점

이번 활동을 통해 저를 포함한 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도서관에 쉽사리 가지 않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책을 대체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아지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더 무거워진 지금,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이상의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대화할 공간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한다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한국에서 1인당 평균 독서량이 1권을 넘지 않을 정도로 책과 도서관과 먼 삶을 살고, 또한 당장 다가온 학업, 취업 등에만 매달리느라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 걱정 없이, 부담 없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Insight

* 도서관 자체에 대한 인식 문제
* 도서관을 휴식하는 장소로도 이용
* Ebook 등 책 외의 전달 매체가 증가하면서 지식을 전달 받기 위한 책에 대한 의존도 감소

이러한 점들이 도서관 이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고, 이제 도서관을 독서만 하는 공간이 아닌 편안하고, 대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좋다 생각했습니다.